

 <b>인천광역시</b>	<b>보도자료</b>		<b>재인동포청 최적지</b> <b>인천뿐입니다</b>
	배포일자	2023년 4월 26일(수) 총 2매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응급의료담당 박은영 ☎ 440-3251 • 담당자 윤지숙 ☎ 440-325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병원에 24시간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개소**  
**- 소아(중증)응급병상,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등 필수 의료장비 갖춰 -**  
**- 전문의 6명, 간호사 16명 등 전담 의료진도 확보해 운영 -**

길병원에 이어 인하대병원에도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6일 인하대병원에서 지난 4월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식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인하대병원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020부터 운영에 들어간 길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이어 두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에 8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소아응급

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세종 지역과 소아 인구수가 많은 인천 지역에 각각 1개소를 지난 4월 7일 추가 지정했다.

인하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소아응급환자 5개 병상을 비롯해 중증 소아응급환자 2병상, 소아 음압격리병상과 일반격리 병상이 각각 1개씩 마련됐다. 또한, 소아 전용 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이동감시장비 등의 필수 의료장비는 물론, 24시간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할 전문의 6명과 간호사 16명 등 전담 의료진을 확보해 현재 운영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요즘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에서 두 번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는 큰 쾌거”라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꿈이자 주인공들이 바로 소아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는 2개소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외에도 소아 경증 응급환자를 위한 연세소아과(미추홀구 용현동), 청라연세어린이병원(서구 청라동) 등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